

# 핀란드 교육 관련 연구 동향분석 :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김영환\* · 김영민 · 김현수 · 노지화 · Murphy Odo Dennis  
· 박창언\*\* · 김은지\*\*\* · 배진희\*\*\*\* · 손미\*\*\*\*\* · 정주훈\*\*\*\*\* · 이채영\*\*\*\*\*

## [요약]

핀란드 교육은 2001년 PISA 발표 이래 계속 한국 교육의 경쟁자 또는 지향점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교육계에 나타나고 있는 분열과 대립, 그리고 불행의 지표들을 보면, 핀란드의 행복교육과는 거리가 너무도 멀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학술지에 나타난 핀란드 교육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RISS에서 논문 제목에 핀란드와 교육이 들어간 논문 160편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 교육에 대한 연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둘째, 연구주제는 대부분 미시적이었으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위주였다. 셋째, 소수의 연구자가 전체 연구의 1/3을 출판했다. 넷째, 핀란드와 함께 비교된 나라는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주로 신자유주의적 국가였다. 다섯째, 연구 주제와 대상이 주로 초중등, 수학·과학 등 PISA의 영향권에 있었다. 향후 핀란드 교육관련 연구에서는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영역에 대한 연구를 넘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핀란드의 행복교육을 이루어온 과정과 역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문헌연구 위주의 방법을 벗어나 핀란드 교육 커뮤니티와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실제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협의회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는 국제 공동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핀란드, 연구동향분석, 국내 학술지,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 김영환, 부산대학교 교수, 제1저자

\*\* 김영민, 김현수, 노지화, Dennis Odo, 박창언, 이상 부산대학교 교수

\*\*\* 김은지, 핀란드 Tampere대학교 박사과정

\*\*\*\* 배진희, 예수대학교 교수

\*\*\*\*\* 손미,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 정주훈, 부산대학교 강사

\*\*\*\*\* 이채영,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교신저자, hisgift7@pusan.ac.kr

논문접수 : 2024년 3월 15일, 논문심사 : 2024년 4월 8일, 게재승인 : 2024년 4월 15일

## I. 서론

2001년 PISA의 결과 발표 이후 핀란드 교육은 전 세계적 모범사례로 주목받아 왔다. 핀란드 교육은 학생들이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적으면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교육의 효율성 측면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만족과 신뢰, 그리고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형성된 교육의 질까지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Aho, Pitkanen & Sahlberg, 2019; Sahlberg, 2011). 실제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교육전문가와 연구자들이 핀란드 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교육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 2019년 9월부터는, 이들을 공식적으로 맞이 위한 웹사이트<sup>1)</sup>까지 개설되었다.

게다가 핀란드 교육은 대학원까지 무료라서, 우수한 세계의 교육 유학생들이 모이고, 이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 핀란드 관련 연구를 지속해 핀란드 교육은 점점 더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비록, 최근에 와서 많은 난민의 유입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학업성취도와 PISA 순위가 조금 낮아졌으나, 행복한 학습자와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사 그리고 함께하는 커뮤니티와 정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세계의 귀감이다.

핀란드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철저하게 bottom-up 시스템이었다. 핀란드 교육개혁은 표면적으로는 1965년 종합학교가 출발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1249년 시작되어 660년 동안 겪은 스웨덴 식민통치와 바로 이어진 러시아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1917년 독립과 1918년 핀란드 내전, 또한 제2차세계대전에 휘말려 나치 편에 섰다 생긴 깊은 상처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국민적 합의라는 토대에 더 주목해야 한다.

그 결과 1921년에 의무 교육법이 생겨 초등학교 6년 과정이 의무화되었으며, 교사가 ‘국가의 촛불’로 불리면서 존경받게 되었다. 1937년에는 사민당-농민당 연합정부가 수립되고, 이때부터 포괄적이며 보편적인 사회보험체계가 마련되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 핀란드 복지국가 모델이 4자(노동자, 사용자, 정부, 농민) 협상체계에 기반한 것이라고 본다(서현수, 2021; 서현수·최한수, 2020). 제2차 세계대전 중 핀란드는 소련의 침공으로부터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나치의 도움을 받았고, 결국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나치와 한편에 서서 소련과 전쟁했다는 죄로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에게 외면당해 홀로서기를 해야 했다.

이런 뼈아픈 고난의 역사 속에서 국민적 토론과 합의의 중요성을 깨달은 핀란드인들은 1945년 초등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놀랍게도 이 교육과정의 기초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핀란드 교육은 전쟁 중에 습득했던 독

---

1) Finland Education Excellence, Joy of Learning. <https://learningscoop.fi/>

일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열의가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목표’가 되었다. 독일 방식이란 조기에 인문 또는 직업학교로의 진학을 결정하는 제도로, 이렇게 11년을 마치면 학생들의 진로가 극단적으로 양분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민주적 결정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초등교육과정위원회는 300개 학교의 교사 1,000명이 참여한 실증연구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교육개혁을 위한 철저한 참여·조사연구는 핀란드 교육의 전통이 되었다. 이 위원회는 7년 동안 성실하고 치밀하게 연구한 결과를 1952년에 출판하였는데, 여기에는 학생의 생각을 반영한 폭넓은 시각, 세련된 설명과 풍부한 내용, 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사회 결속력의 강조 등을 반영한 핀란드 교육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Sahlberg, 2016). 이 과정에서 1968년에 생겨난 것이 기초교육법이다. 그리고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무상교육과 소외 계층 지원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변화와 노력은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교사의 학습과 학교에 대한 재개념화를 위한 많은 협력 세미나를 거쳐, 드디어 중앙정부의 통제와 법령에서 벗어나 ‘신뢰에 바탕을 둔 학교 문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Sahlberg, 2011). 이런 교사와 학교에 대한 변화의 시발점은 사실 학습자에게 자유를 주면 사고력, 문제해결력 그리고 창의성이 좋아진다는 원리를 파악한 것이었다(정경화, 2020). 그리고 학습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유를 주게 된 것이다.

그러면, 핀란드와 함께 PISA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왔음을 오랫동안 자랑해 왔던 우리는 핀란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과연 핀란드의 문화와 정치, 그리고 그 안에서 성숙되어 온 핀란드 교육의 특성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 식에서 출발했다. 이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자들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학자들의 연구는 여론과 정책에 영향을 주고 사회를 관찰하면서 사회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항상 점검하고 비판하는 오실로스코프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학술지에 나타난 핀란드 교육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연구 동향 및 키워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핀란드 교육 관련 연구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세부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핀란드 교육관련 연구물의 주요 기초 통계는 어떠한가?

둘째, 국내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핀란드 교육관련 연구물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핀란드 교육개혁의 특징

국제 사회에서 핀란드 교육개혁은 교육적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선행 연구들은 핀란드 교육개혁에 대해 교훈과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권충훈·김훈희(2009)는 핀란드 교육은 ㉠교육이념은 통합학교에서, ㉡교육제도는 종합학교 개혁에서, ㉢교육과정은 자율성과 책무성의 극대화에서, ㉣학생 지원은 학교 복지의 수혜자 관점에서, ㉤교원교육과 교직원 전문성과 자율성의 보장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현수(2023)도 핀란드가 역량 중심 복지국가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교육개혁 운동(GERM)을 뛰어넘는 교육 혁신인 ‘제4의 길’을 선도해 왔는데, 그 핵심을 ㉠1960년대 이후 종합학교 개혁, ㉡특수교육 패러다임의 혁신, ㉢교원 양성 체제 개혁, ㉣국가 교육과정 혁신 등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Sahlberg(2011)는 다른 나라가 핀란드 교육개혁을 벤치마킹하여 성공적인 개혁과 우수한 교육성과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회, 고용, 경제 부문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다른 교육제도에서 특정한 요소나 혁신만 빌려오는 대신, 더 크고 복잡한 시스템의 특징과 정책 원리를 빌려오는 것을 추천했다. 그리고 이런 요소 간 상호작용은 개별 요소의 특징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수한 교육성과의 기술적 원동력, ㉡사회문화적 요인, ㉢다른 공공정책 부문과의 연계 등을 감안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성열관(2009)도 핀란드 교육의 단순 모방에만 그칠 게 아니라 복지국가에 기반한 교육체제라는 관점에서 핀란드 교육을 바라봐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핀란드 교육과 다른 요소 간 상호작용은 유경훈과 그의 동료들(2017)이 분석한 핀란드 교육개혁의 특징과도 맥락이 같다. 해당 연구자들은 “핀란드 교육개혁의 특징 분석”을 통해 다음 다섯 가지의 특징을 도출했다: ㉠사회적으로 공유된 책임감에 기반한 관련 기관 간 체계적인 협의와 협력, ㉡각 교육개혁 정책의 긴밀한 연계 운영,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의 요구를 존중하는 개혁, ㉣안정적 복지예산과 선순환 구조로의 유기적 연계, ㉤핀란드 문화에 깊이 내재된 기본가치의 존중 등이었다. 이들의 포인트는, 핀란드는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기보다 핀란드 사회에 이미 존재했던 복지국가로서의 가치와 이념을 교육에 반영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 2. 핀란드 교육 연구 동향에 관한 선행 연구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핀란드 교육개혁으로 인한 핀란드의 교육적 성공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학계에서는 핀란드 교육 관련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의 추이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동향 분석도 더불어 시행되기 시작했다. 김병찬(2015)은 “핀란드 교사 교육 연구 동향 고찰”에서 1990년대 이후부터 2013년까지 핀란드 및 유럽의 학술지에 실린 핀란드 교사 교육 관련 논문 20편을 분석하고 교사 교육의 기반이나 배경, 교사 교육과정, 교사 교육의 성과/평가/방향에 관한 연구가 많았음을 밝혔다. 또한 이들 연구의 특징을 ㉠교사들이 자신의 소속 기관에서 연구를 실행하고 있으며,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 자신이 해 왔던 직무나 수업의 개선과 실행으로 바로 연계된다는 점, ㉢교사 중심의 학문공동체에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외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풍토에 맞게 토착화시키며, ㉤현상 연구만이 아닌 메타 연구도 활발하다는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채희인과 노석구(2015)는 “핀란드의 핵심역량 교육 연구 동향: 초등과학교육 중심의 분석”을 위해 핀란드와 OECD에서 발행한 관련 연구보고서 10개와 핀란드 2004교육과정과 2012개정교육과정 그리고 관련 과목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핀란드에서는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핵심역량의 요소는 배움 중심, 의사소통능력, 평생학습이었고, ㉢교과목 중심에서 주제 중심으로 교육이 전환되고 있었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역량, 자격, 교육, 의사소통 등의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신문승(2011)은 “핀란드 종합학교 교육의 성공 요인과 시사점”에서 핀란드 종합학교 교육제도를 PISA 평가와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핀란드 교육정책과 동향을 분석하여 성공의 공통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평등한 교육, ㉡교육의 복지정책화, ㉢개별화된 학습으로 수월성 추구, ㉣종합학교 수업 내용이 국가 중핵교육과정에 통합교육과정 주제로 제시되어 있으며, ㉤종합학교의 성공은 교육과정의 분권화 및 자율성에 따른 책무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Ⅲ. 연구방법

국내 학자들의 핀란드 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에서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를 대상으로 “제목: 핀란드”로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검색하여 총 257건을 찾았다(2024년 2월 18일 재확인). 이들 논문의 제목과 요약은 연구자들이 읽고 검토하여 교육과 관련된 논문 160편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동향 및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NTA)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은 연구물에 나타난 텍스트의 주요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 논문 및 분야의 저술 등에 나타난 키워드들의 문장 또는 문단의 동시출현빈도수를 계산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연관성지표와 알고리즘을 통해 도식화한 네트워크 분석법이다(이수상, 2014). 이 방법은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의미 있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구주제와 그 영역의 전체적인 흐름, 특징, 지식구조의 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Park & Leydesdorff, 2004; 김영환, 2019; 김영환, 2021; 김영환, 이승민, 배혜림, 손미, 2019; 손미, 정주훈, 김영환, 2016)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첫째, 앞서 최종 선정된 논문 160편을 제목, 저자명, 발행연도, 발행 학회지, 주제어로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분류하였다.

둘째, 이들 논문 한 편당 5개의 주요키워드(Core Keyword)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선정 기준은 최대한 원 연구자가 제시한 키워드들을 위주로 영역, 연구방법, 연구주제, 국제 비교 대상국가, 과목, 연구자가 제시한 주제어 등으로 구분되었다. 원칙적으로 저자가 제공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되, 5개가 안되는 경우에는 제목과 요약을 참고해서 늘렸으며, 5개가 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여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들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주요키워드는 연구자들이 정제과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공통기준을 연구자별로 적용, 검토 및 선별의 과정을 거친 후, 온라인(ZOOM)으로 다시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5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추출한 주요 키워드 5개 외에 논문의 출간 연도를 6번째 키워드로 추가하여, 연도별 키워드들 간의 관계는 어떤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발행연도별 논문 빈도수와 핀란드 및 우리나라의 PISA 등위를 그래프로 도출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연구자별, 학술지별 게재 논문의 빈도수를 통해 어떤 연구자와 학술지가 관련 연구에 관심도가 높은지를 파악해보았다.

넷째, 일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방법, 비교대상 국가, 연구주제 등을 연구자들이 각각 협의된 지표에 따라 분류하고, 크로스 체크와 검증을 통해 결과를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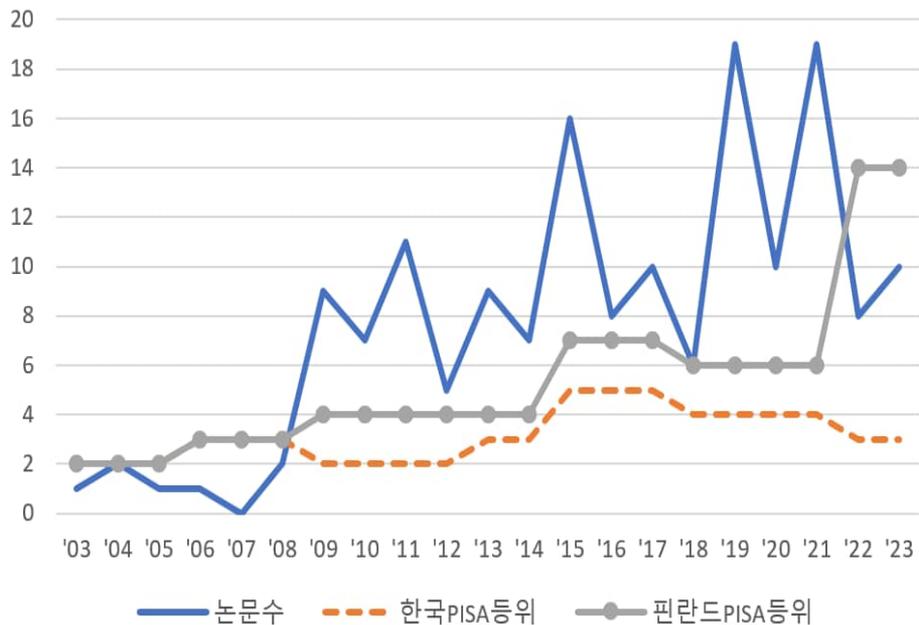
다섯째, Krkwi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키워드들의 빈도수를 도출하고, 이를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도식화하였다. 빈도수 8회 이상의 주요 키워드들을 대상으로 동출현 빈도 매트릭스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NodeX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egree 중심성(centrality) 값을 분석하였다. 또한 Degree 값에 정비례하도록 엣지나 노드 크기를 설정하고, 노드 간 관계성을 Fruchterman-Reingold 알고리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또한 클러스터 분석을 위해 NodeXL 프로그램의 Clauset-Newman-Moore를 사용하여 그룹화하고, Fruchterman-Reingold 알고리즘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기초 통계분석

#### 1) 발행 연도별 논문 현황

핀란드 교육을 주제로 연구된 총 16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발행 편수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PISA 등위와 핀란드 교육 관련 연도별 논문 편수

RISSE 기준, 핀란드 교육관련 논문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2003년으로, 이때부터 단편적으로 연구되던 관련 연구는 2009년부터 즉, PISA2009 이후 급증하였다. 2003년 1편, 2004년 2편, 2005년 1편, 2006년 1편, 2008년 2편 등 매년 연구가 1~3편을 발행되다가 2009년에는 10편으로 대략 10배 정도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09년과 2011년의 연구물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한국의 PISA2003과 PISA2006의 높은 순위와 함께 핀란드 교육이 주목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PISA2021에서 핀란드의 순위가 낮아진 후 2022년에는 핀란드 관련 논문 수가 8편으로 줄었다가 2023년에는 10편으로 회복되었다. 전반적으로 관련 논문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핀란드 관련 논문 수는 한 해 올라가면, 그다음 해에는 내려가는 업-다운 현상이 반복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다운 현상이 가장 심했던 해는 2012년, 2018년 그리고 2022년 등으로 이들 ‘골이 깊은’ 해들을 기준으로 하면 크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작기,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1단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단계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로 구분이 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은 계속 상향되고 있다.

핀란드 교육 관련 연구의 양이 이렇게 업-다운을 반복하는 이유는 어쩌면 핀란드 관련 연구자의 숫자가 많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표 1>을 보면, 핀란드 교육 관련 논문을 2편 이상 발표한 연구자는 28명이었으며, 이들이 41.3%에 해당하는 66편의 논문을 발표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복수 논문 출판자

논문 편수	빈도(%)	연구자
8편 1인	8(5)	김병찬
3편 4인	12(7.5)	노석구, 서현수, 손원숙, 장수명
2편 23인	46(28.8)	곽병훈, 구남욱, 권미선, 김성숙, 노경란, 박찬호, 서공주, 성열관, 신문승, 오수길, 윤은주, 이경연, 이영미, 이진경, 임유나, 임해미, 정혜승, 조덕주, 주웅영, 채희인, 한유미, 한정아, 홍미영
계	160(100)	

## 2) 연구 방법별 논문 현황

논문에 나타난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109편(67.7%)의 연구가 문헌을 토대로 한 문헌연구로 가장 많았고, 학업성취도나 PISA

접수를 비교하는 양적연구가 22편(13.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질적연구라고 분류했지만, 주로 개별 면담을 통한 연구들이 7편이었고 현장 방문을 통해 면담한 연구는 1편이었다. 그 외 여러 방법을 혼합한 연구는 3편(1.9%)이었으며, 연구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기타 논문이 19편(11.8)이었다.

<표 2> 연구 방법별 논문 현황

연구방법	빈도	%	내용
문헌연구	109	68.1	문헌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비교하고 논의한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한 비교분석, 사례 연구 모두 포함함)
면담	8	5	포커스 그룹(면담 등)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 연구
양적연구	22	13.8	통계분석,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 연구
혼합연구	3	1.9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혼합연구
기타	18	11.3	국제 비교, 자문, 교육 거버넌스 분석 등
계	160	100	-

### 3) 학술지별 발행 편수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행한 학술지는 비교교육연구로 17편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가 10편, 스칸디나비아연구와 교육평가연구가 각각 6편씩 모두 12편, 초등수학교육연구가 5편, 교육과정평가연구와 교육비평이 4편, 그리고 교과교육학연구, 교사교육연구, 교육정책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유아교육연구, 음악교육연구, 예술교육연구, 한국교육학연구가 각각 3편씩 발행하였다. 2편씩 발행한 학술지들은 HRD연구, 교사교육, 교육과정연구, 다문화교육연구, 독서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수학교육연구, 초등과학교육, 초등교육연구, 통합교육과정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한국체육교육학회지 등으로 <표 3>과 같다.

<표 3> 학술지별 논문 발행 현황

학술지	빈도(%)	학술지	빈도(%)	학술지	빈도(%)
비교교육연구	17(10.6)	교육행정학연구	3(1.9)	디지털융복합연구	2(1.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6.2)	유아교육연구	3(1.9)	미술교육연구논총	2(1.2)

스칸디나비아연구	12(7.5)	음악교육연구	3(1.9)	수학교육연구	2(1.2)
교육평가연구	12(7.5)	예술교육연구	3(1.9)	초등과학교육	2(1.2)
초등수학교육연구	5(3.1)	한국교육학연구	3(1.9)	초등교육연구	2(1.2)
교육과정평가연구	4(2.5)	HRD연구	2(1.2)	통합교육과정연구	2(1.2)
교육비평	4(2.5)	교사교육	2(1.2)	한국비교정부학보	2(1.2)
교과교육학연구	3(1.9)	교육과정연구	2(1.2)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1.2)
교사교육연구	3(1.9)	다문화교육연구	2(1.2)	기타	57(35.4)
교육정책연구	3(1.9)	독서교육연구	2(1.2)	계	160(100)

#### 4) 비교 대상 국가별 논문 현황

본 연구의 연구대상 논문 160편 모두가 우리와 핀란드를 비교했지만, 73편의 논문은 3개국 이상을 비교하였으며, 세부 국가 현황은 <표 4>와 같다. 이들 중 가장 많이 비교되었던 나라는 일본 14편(19%), 미국 10편(14%), 영국 9편(12%), 호주 9편(12%), 싱가포르 7편(9.6%), 캐나다 7편(9.6%), 독일 4편(5.5%), 스웨덴 3편(4%), 홍콩 3편(4%), 프랑스 3편(4%) 그리고 기타 국가가 4편(5%) 등으로 나타났다.

<표 4> 비교 대상 국가 현황

국가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독일	스웨덴	홍콩	프랑스	기타	계
빈도	14	10	9	9	7	7	4	3	3	3	4	73
%	19	14	12	12	9.6	9.6	5.5	4	4	4	5	100

#### 5) 핀란드 교육 관련 연구 주제 분석

핀란드 교육 연구 160편을 크게 학업성취, 교과서, 교육과정, 정책, 교사 교육, 기타 등 연구 주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주요 연구 주제에 관한 목록은 [그림 2]와 같은데, 그 특징으로는 학업성취, 교과서, 교육과정, 미시적 정책, 교사, 교사교육 등의 미시적 접근의 연구가 많았다.



하위	내용	빈도	비율
교육과정	수학(4), 과학(2), 읽기(1), 음악(5), 역사(3), 미술(2) 등	36	22.4
교과서	수학(11), 과학(3), 읽기(3) 등	17	10.6
학업성취도	수학(3), 과학(5), 읽기(2) 등	15	9.3
교사	교사교육, 교장교육, 예비교사 등	10	6.2
	교사일상, 교수역량, 교사용지도서 등	9	6.8
정책	거시: 교육정책(6), 교육제도(6), 교육개혁(2), 교육혁신(2)	18	11.2
	미시: 보육정책(4), 교육환경(2), 교육복지(3) 등	14	8.7
기타	다문화 교육, 대입, 교육복지 등	40	24.8
계		160	100

[그림 2] 핀란드 교육 관련 연구물의 주요 주제 현황

#### 6) 핀란드 교육 관련 연구의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핀란드 교육 관련 연구의 키워드 빈도수 및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빈도수 19 이상의 주요 키워드는 문헌 연구, 국제 비교, 중등교육, 초등교육, 교육과정, 수학교육, 양적연구, 2019, 2021로 나타나 핀란드 교육에서 문헌 연구, 국제 비교연구가 초등교육, 중등교육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문헌 연구는 109회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를 이은 양적연구는 22회로 문헌 연구의 빈도수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핀란드 교육 연구 방법 접근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역으로는 중등교육, 초등교육, 유아교육 순이었다. 한편, 평생교육이나 대학 교육은 중위권이나 하위권을 차지하여 연구가 청소년 이하의 아동으로 제한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빈도수 분석에서 과목 측면으로 주목할 점은, 8회 이상의 빈도수에서는 수학 과학 읽기 영역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PISA 평가 영역으로 연구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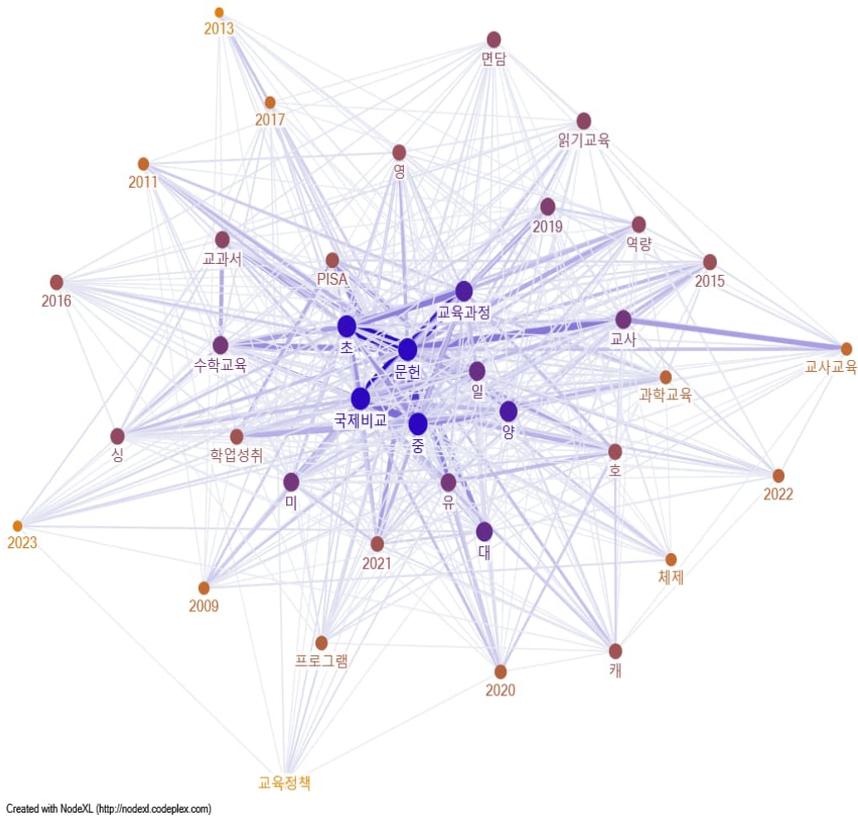


키워드	빈도
문헌	109
국제비교	55
중등	55
초등	43
교육과정	39
수학교육	24
양적연구	22
2019	19
2021	19
교과서	18
유아교육	17
일본	17
2015	16
PISA	16
대학	15
역량	15
학업성취	14
과학교육	13
읽기교육	13
교사	12
교사교육	12

[그림 3] 핀란드 교육관련 연구 키워드의 클라우드 분석 결과

## 2. 핀란드 교육 관련 연구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결과

키워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빈도수 8 이상의 38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노드의 크기는 Degree 중심성 값에 비례하고, 엣지의 두께와 진하기는 노드 간의 연결 정도와 비례하도록 하였다. 전체 그래프는 Fruchterman-Reingold 알고리즘으로 시각화하였다.



[그림 4] 핀란드 교육관련 연구 키워드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결과

대상자 측면에서는 ‘초’, ‘중’ 등의 키워드가 네트워크 중심에 있었다. Vertex의 크기와 다른 노드들과의 연결 정도 측면에서 이들은 모두 크게 나타난다. 한편, 대학 교육은 비교적 주변부에서 나타났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문헌’, ‘양’ 이 네트워크 지도 중심부에 나타났다. 그러나 ‘면담’ 은 주변부에 있었다. 즉, 핀란드 교육 관련 연구에서는 문헌 중심 연구와 양적 연구가 주요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면담 연구와 같은 현장 자료를 활용한 연구 방법은 제한되게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과목 측면에서는 수학교육, 읽기교육, 과학교육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모두 PISA 주요 평가 영역이다. 따라서 과목 측면으로 접근한 핀란드 교육 연구는 PISA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국가 측면의 노드로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국제 비교’ 노드와 가깝게 위치하여 국제비교 연구와 미국 간의 관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연구 주제 측면으로는 중심부에는 교육과정, 주변부에는 프로그램, 정책 등이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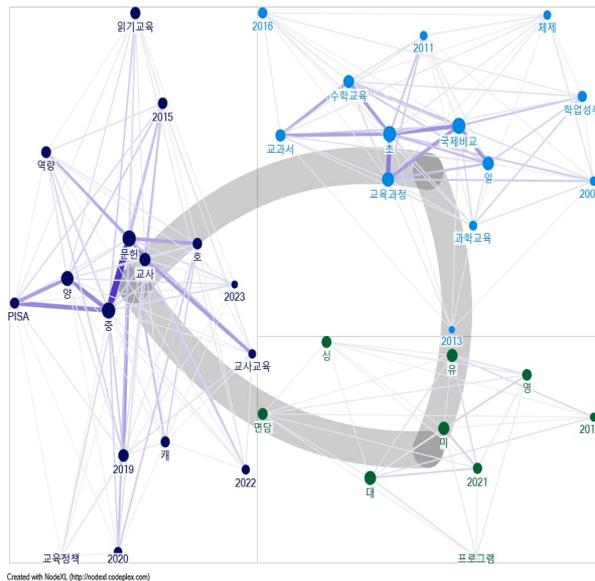
타났다. 이는 핀란드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클러스터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클러스터 분석을 위해 Clauset-Newman-Moor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세 가지 그룹으로 군집화되었다. 그룹은 대상 측면의 노드인 ‘중(등교육)’, ‘초(등교육)’, ‘대(학교육)’ 으로 나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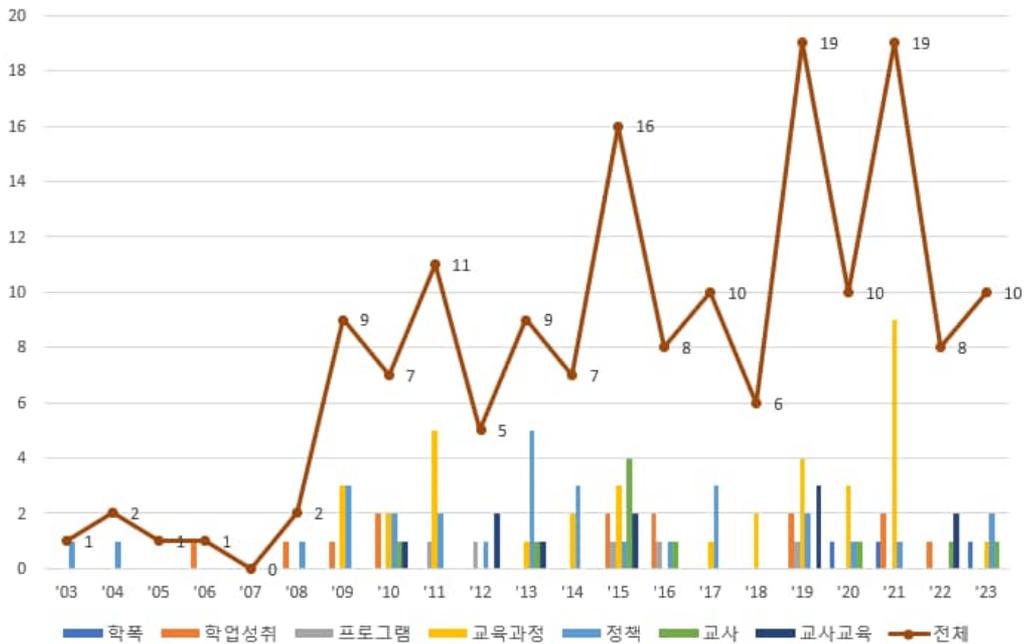
‘중등교육’ 그룹에서는 교사, 교사 교육 등이 등장했다. 특히 중등 교육 노드는 ‘양’, ‘PISA’ 간의 독립적인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등교육이 문헌 연구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나 PISA 자료를 활용한 양적연구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교육’ 군집에서는 ‘초-국제비교-교육과정’ 과 ‘수학교육-교과서-초등교육’ 과의 연결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초등교육에서는 수학교육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의 국제비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교육’ 군집에서는 ‘면담’ 연구 노드와 ‘프로그램’ 이 연구 주제 노드였으며, ‘미국’, ‘싱가포르’, ‘영국’ 과 같은 비교 연구 대상 국가들의 노드가 다수가 있었다.



[그림 5] 클러스터 분석



[그림 6] 핀란드 교육관련 학술논문의 연도별 출판 빈도 및 주요 주제 현황

위 [그림 6]의 영역별 빈도를 자세히 보면, 핀란드 교육관련 논문들은 출현 빈도로 볼 때,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두 번째 시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 번째 시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다. 그리고 이들 시기는 놀랍게도 이명박 정부(2009~2013), 박근혜 정부(2014~2017) 그리고 문재인 정부(2018~2022)와 거의 정확하게 겹친다.

그런데, 이 세 시기별로 나타나는 논문의 경향이 차이가 난다. 우선 1시기(3+2+5=10개)와 3시기(4+3+9=14개)에는 공히 교육과정에 대한 논문이(24개) 교사와 교사교육에 대한 논문(2+7=9개)보다 훨씬 많았다. 반면에 2시기에는 교육과정 관련 논문은 6편(1+2+3)에 불과하고, 교사와 교사교육 관련 논문이 9편(6+3)으로 더 많았다. 정책관련 연구도 이와 유사하다. 1시기와 3시기에 나타난 정책관련 연구는 두 시기 8년 동안 14개이지만 2시기 6년 동안에는 13개이다. 이런 경향성은 클러스터 분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중등교육군집’이 첫 번째 시기와 세 번째 시기의 결합으로 보이고, ‘초등교육군집’이 2시기로 보인다.

결국 [그림 5]와 [그림 6]들을 함께 정리하면,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연구동향이 유사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좀 달랐다는 것인데, 이와 똑같은 현상을 김영환(2018)은 “교육 혁신 관련 연구 주제 변화 동향 분석”에서 발견하고 “지그재그형 변화”라

고 불렀다. 게다가, 위의 ICT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것처럼, 핀란드 교육 관련 연구물의 숫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유사하다. 김영환(2018)의 연구와 더 밀접하게 비교해 봐야 하겠으나, 안타깝게도 위 연구의 데이터는 문재인 정부의 첫해인 2018년까지여서 더 비교할 수 없었다. 어쨌든, 교육 혁신 관련한 연구들이나 핀란드 교육 관련한 연구들이 정부에 따라서 서로 지그재그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인되었고, 이는 어쩌면 우리의 정부들이 ‘서로 다르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 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초에 사로잡힌 정책에, 그리고 이런 정책을 음으로 그리고 양으로 지원하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되지만, 추후 각 정부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엄밀한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 V. 결론 및 논의

이상에서 나타난 핀란드 교육 연구 동향에 대한 기초 통계와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결과에 대해 다각적 측면(교육과정, 영어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교육복지)에서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와 다각적 측면의 논의를 종합하여 “2. 종합논의” 부분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 1. 연구 결과 논의

#### 1) 교육과정 측면

교육과정 측면에서 나타난 국내 핀란드 교육 연구 동향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한 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개발, 개발 후속지원, 교육과정 운영, 평가와 질 관리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이들 제반 과정을 법과 행정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박창언, 2023). 하지만, 핀란드는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 첫째, 핀란드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투명함과 많은 교사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치며 개발하는 핀란드의 장점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핀란드에서 수십 년 동안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운영됐던 국가교육위원회의 외양만을 보고 조성된 우리의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관련 연구의 양은 물론 질이 부족함을 고려할 때, 우리의 갈 길은 멀게만 보인다. 둘째, 개발

후속지원의 교과서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과서 제도 운용 방식이 달라 비교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보나 AI 교육 등 첨단 분야에 대해, 시범적으로 자유발행 교과서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운영은 성과가 적지만 학교가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자율에서 ‘훨씬 더 포괄적 의미에서의 핀란드와 유사한’ 수준의 학교 자율이 가능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평가와 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목표에 따른 평가와 이의 피드백을 통한 시정조치는 향후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질 관리의 하나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제도적 부문에 관한 연구는 더욱 저조한 편이다. 교육과정이 법이라는 통로를 통해 만들어지고, 단위 학교에 적용이 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제도적 부문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 중심이고 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Top-down 형이라는 점에서 핀란드의 교육과정과는 그 기본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차이를 보면, 얼핏 핀란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의 모든 교육과정 관련 연구가 교과목 또는 직업적인 사안과 관련한 것들이었다. 이는 핀란드와 우리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이 워낙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 가는 핀란드형 교육과정의 도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2) 영어교육 측면

핀란드 영어교육의 성공은 핀란드의 영어 교사가 받는 우수한 훈련(김영환, 정현숙, 2014)과 교사들이 갖는 교과 과정 개발과 교실 운영 결정에 대해 갖는 더 큰 자율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바탕이다(김인옥, 박지희, 2017). 그리고 이런 경향성은 교과서, 교육 방법 그리고 문해 교육에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영어교육 교과서를 보면, 핀란드 영어 교과서는 어휘량을 허용 범위 내에서 유지하면서 더 진정성 있게 보이도록 도와주는 서술에 더 많이 의존하고(이진경, 2023), 일반적으로 더 단순하지만, 확실한 언어(김인옥, 박지희, 2017)와 영어의 의사소통 사용에 더 많은 기회를 포함한다(이진경, 2023).

영어교육 방법에서는 핀란드가 한국에 비해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의 네 가지 기술을 따로 가르치기보다는 통합적 접근을 더 많이 하는데(김인옥, 박지희, 2017; 김영환, 정현숙, 2014; 윤유진, 2009), 내용-언어 통합 교육(CLIL)으로 알려진 언어 교육 접근 방식을 통해 언어 교육과 교과목의 수업을 결합하는 경우가 더 많고(김인옥, 박지희,

2017), 평가는 보다 과정 지향적이다(김인옥, 박지희, 2017). 핀란드 대입 영어 독해 시험도 한국보다 긴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수준 차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구분한다(이현지, 이동주, 2022).

또한 한국과 핀란드의 문해 교육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교훈을 조사한 연구도 여럿 있었다. 한국의 PISA 문해력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부 교육적 맥락 변수(예: 성별, 학교 ESCS)가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쳤고 학생 그룹 간 성취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이인화, 구남욱, 2019). 이는 영국과 핀란드의 경우처럼, 향후 한국은 학업 지원 정책에서 문해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이경남, 2022). 학습자의 문해력은 물론 삶의 만족도에서도 핀란드가 한국보다 높았는데, 이는 학습자가 갖는 학습 환경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정혜원 외, 2021) 한국 학교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보다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3) 수학교육 측면

핀란드의 수학교육 관련 연구에는 한국과 핀란드의 수학교육과정 또는 수학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연구들이 많았는데, 공통으로 한국 교과서가 형식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선호하는 반면, 핀란드 교과서는 더 융통성 있고 직관적으로 내용을 다룬다고 보았다(방정숙, 김유경, 2017; 최은, 권오남, 2020). 특히, 핀란드의 경우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실생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교육이 강조되는 데 반해, 한국 학생들은 실제 생활과 연계된 학습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김선희, 2014; 김원경, 김가람, 2019). 또, 핀란드 초등 수학 교과에서는 프로그래밍 교육에 적합한 활동이 균형 있게 제시(권미선, 2023)되어 있으며, 핀란드 교과서에 사용된 삽화 및 이름에는 다문화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조문주, 2011)고 지적하였다. PISA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여학생의 점수는 PISA 2009와 비교하여 유지됐지만, 남학생의 점수가 급격히 하락한 결과의 원인을 상위수준의 남녀 비율 차이로 보고하였고(임해미, 한정아, 2016), 이러한 남녀의 상위수준 성취에 영향을 준 주요 교육 맥락 변인은 방과 후 숙제 시간, 학습활동 태도, 학교 평균, 교사와 학생 관계로 나타났다(임해미, 이현정, 김성숙, 2016).

수월성 교육 시스템을 비교한 연구(신문승, 2018)에서는 싱가포르의 능력별 선별을 기초로 한 영재 학생을 별도의 영재학교에서 교육하는 반면, 핀란드는 선별하지 않은 통합 교육을 통해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지만, 모든 학생의 자아실현을 위한 차별화 교육 시행, 개별 학습자에게 알맞은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제공, 교육의 결과로써 교육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형평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 두 국가 모두 교육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4) 과학교육 측면

160편 중 13편이 핀란드의 과학교육과 관련되어 있었다. 주로 한국과 핀란드의 비교 연구들이며, 그 영역은 과학 교육과정 비교, PISA 과학성취 비교, 과학 교과서 내용 비교, 과학교육 과정이 과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과학 사교육 참여 시간과 학업성취도와와의 관련성 비교, 학습 동기, 자아개념,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 비교, 과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 비교, 고등학교 내신 평가 체제 비교 등이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교육과정의 경우 한국의 경우는 과학 기구들의 사용 및 사용 방법에 초점을 두지만, 핀란드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과학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이소영, 노석구, 2014). 또한, 한국은 정규 교육과정에 의해 과학 학업성취도를 높이기보다는 핀란드에 비해 많은 학습 시간(사교육 시간 포함)을 투입하여 성취도를 높이고 있으며, 핀란드의 경우에는 과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학업성취도 수준과 관계없이 많은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김대석, 홍후조, 2010; 성기선, 김준엽, 2010). 둘째, PISA 과학성취 비교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은 ‘개방형 구성형’ 문항의 정답률이 핀란드 학생들에 비해 크게 낮았다(최혁준, 2015). 그리고 핀란드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과학에 대한 내재적 동기(흥미)나 도구적 동기, 자아개념 등이 높은 수준이며, 과학에 대한 학습 동기와 자아개념이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전반적으로 더 높다(박현정, 2008). 셋째, 과학 교과서 내용 비교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학적 원리와 개념 설명 중심인 데 비해, 핀란드의 경우는 실생활 도구의 활용과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이며, 우리나라 교과서는 실제적 사진 중심인데 핀란드의 경우에는 그림과 사진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이야기적 서술도 포함하고 있다(채희인, 노석구, 2016; 조덕주, 이경희, 2013). 넷째, 과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 비교연구에 의하면 ‘교과목(Subject)’ 중심의 교육보다는 ‘주제(Topic)’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채희인, 노석구, 2015). 다섯째, 고등학교의 내신 평가 체제 분석에 따르면, 핀란드는 학생 스스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학습을 위한 평가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고, 교과목별 담당 교사가 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모두 가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핀란드는 담당 교사가 출제 및 평가한 내용을 외부 사정관이 검토하는 방식의 이차원적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유정, 홍훈기, 2019).

한국과 핀란드의 고등학교 내신 평가 체계를 비교·분석한 연구(김유정, 홍훈기, 2019)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외부자의 시선에서 평가하지만, 핀란드는 학생 스스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학습을 위한 평가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고, 교과목별 담당 교사가 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모두 가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핀란드는 담당 교사가 출제 및 평가한 내용을 외부 사정관이 검토하는 방식의 이차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고정 분할 점수 또는 단위 학교 산출 분할 점수 중 하나를 선택하지만, 핀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핀란드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교사 스스로 평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도 교사의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 5) 교육복지 측면

핀란드 교육을 복지와 연계한 연구는 교육 전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핀란드의 제도 및 정책분석을 통해 한국 교육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로 크게 나뉜다. 먼저 핀란드 교육의 특성 혹은 성공 요인을 복지와 연계하여 도출한 연구가 있는데(권충훈·김훈희, 2009; 김병찬, 2011; 김정현, 2014; 성열관, 2009; 서현수, 2021), 이들은 핀란드 교육의 성과가 단순히 교육제도만의 성과나 결과라기보다는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 특히 사회복지제도 차원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는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단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 체제의 개혁과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핀란드의 제도 및 정책분석을 통해 한국 교육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핀란드의 학교폭력 대응, 무상급식, 보육 및 육아 지원 정책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학교폭력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해 핀란드를 포함한 국제 비교연구를 통해 관련 법 개정, 예방 프로그램, 교육적 해결 중심으로의 전환,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회복적 생활 교육으로의 전환, 인성교육의 인권 교육으로의 확장 등을 제안하였다(김하영, 2020; 임미나, 2021; 한유경 외, 2020). 보육 및 육아 지원 정책을 분석한 연구는 핀란드의 육아수당을 포함한 보육 및 육아 지원 정책을 비교하고, 현금성 양육 수당과 서비스성 육아지원(공적 보육서비스와 부모 휴가 등)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강경희·전홍주, 2013; 도미향, 2013; 윤승희, 2015; 홍승아, 2011). 다만 보육 및 육아 지원 정책 자체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젠더 효과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교육과 연계한 심층적 논의까지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2. 종합논의

본 연구 결과, 한국 교육 연구 동향과 국내 정치 변화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동향이 국내 정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유사하게, 현 교육 연구 분야별 관심도 역시 일부 정책에 치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발행하는 국내외 동향 보고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맞물려 디지털 교육 포털에만 집중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핀란드 교육 성공의 표면적이면서 미시적인 부분에만 집중한 경우가 많았고, 문헌연구와 양적연구를 통한 국내와의 비교에만 그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핀란드 대학에서 수학한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발행한 논문들도 일회성에 그치거나, 교육 정책네트워크 해외국가별 교육 동향 보고서(교육정책 네트워크 해외국가별 교육 동향 자료)는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며 뉴스 보도의 형태에 머물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적이고 미시적이며 부분적인 연구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 대표적으로 교육과정이다. 핀란드 교육과정은 전술했던 1945년의 초등교육과정위원회의 활동에서부터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했고, 1985년 이후에는 정치인들 대신, 전문인력과 교육 관계자가 개혁의 중요 설계자가 되었다(Aho, Pitkanen, Sahlberg, 2010). 그리고 이런 혁신은 계속 발전하였다. 예를 들면, 2013-2014년에는 모든 교사, 교육전문가, 관련 교수, 교장, 학생 연합 등이 공개 토론, 지역 미팅을 하면서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웹으로 공개되었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김은지, 2023).

우리가 개인적 관심사와 학문적 연구 능력 이외에 정치적·제도권적 영향력이 더해질 경우, 한 분야를 평생 연구하는 연구자 육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주변국인 일본, 중국과 상호 교류가 많고, 정책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기에 주 비교 연구 국가(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에 비해 북유럽 국가를 연구하는 전문가집단이 부족한 상황도 존재한다. 게다가 핀란드와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신자유주의 국가의 학업성취도 외의 다른 사회문화적·체제적 요인들을 비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적 참조에 대한 사고는 아직도 권다운(2023)이 지적한 대로 그리고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라는 역사적·정치적·관습적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핀란드는 소위 북유럽 국가에 속한 곳으로, 주 연구 비교대상인 스웨덴,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노르딕 국가 뿐 아니라 유럽연합 국가와의 공동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적인 학생, 교사, 직원 교환 프로그램, 교육 워크숍 운영 등을

통해 연구와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예, European Research Council, NordForsk) 따라서 국내의 핀란드 교육 관련 연구의 방향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함께 교육 전문가집단과의 연구 공동체 형성,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유, 교육 현장과의 연계성 증진을 목표로 전향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 주도의 정책적 결정이 아닌 교사,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현장으로부터의 문제 인식, 그리고 교육전문가 집단이 주도가 된 사회 문화 역사적 고찰을 통한 포괄적 교육 현상의 이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후속 연구 제언 사항으로, 핀란드 교육 연구의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 흐름을 고찰하고, 핀란드 교육 분야의 비교연구에서 주 비교 대상 국가와의 주제의 변화, 시사점 등을 도출하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동향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세계의 학자들은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하는지, 한국에 나타난 핀란드 관련 단행본 및 각종 방송에서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핀란드 교육 관련 신문 기사의 동향은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핀란드 또는 다른 나라의 교육에 관해 연구하면서,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나 굴화위지(橘化爲枳)<sup>2)</sup>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에 서둘러 접목했던 많은 외국의 이론들, 예컨대, 아일랜드의 자유학기제와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었으며 또 되어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라도 5.31 교육개혁 이후 허겁지겁 쉼 없이 휘둘러왔던 개혁의 삽질을 잠시 멈추고, 핀란드 자일리톨 껌이라도 입에 넣고 잠시 쉬면서 곰곰이 성찰해야 할 때는 아닐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교육의 목표는 PISA 등수가 아닌 행복한 학습자와 교사, 그리고 부모를 위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것일 것이다.

---

2) 중국 고서 안자춘추에 나오는 말로 ‘귤(橘)이 변해서(化) 탕자(枳)가 된다(枳).’

## 참 고 문 헌

- 강경희, 전홍주(2013).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핀란드, 한국의 양육지원정책 변화 분석: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7(6), 283-304
- 권다은(2023). PISA 전후 우리나라의 교육 참조 국가 변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 719-730
- 권미선(2023). 핀란드 1~2학년 초등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수학적 요소 분석, **학교수학**, 25(3), 385-406.
- 권충훈, 김훈희(2009). 핀란드 교육의 성공 요인 분석과 논의. **교육사상연구**, 23(30), 55-84.
- 김대석, 홍후조. (2010). 학교 과학교육과정이 과학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측정: 한국과 핀란드의 PISA 2006 과학영역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8(1), 87-112.
- 김병찬(2011). 핀란드의 대학 교육활동 재정지원 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24(1), 53-84.
- 김병찬(2015). 핀란드 교사교육 연구 동향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21(2), 249-277.
- 김선희(2014).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외국 교육과정의 탐색 = 일본, 대만, 홍콩, 핀란드, 중국을 중심으로, **수학교육학연구**, 24(4), 481-498.
- 김영환(2018). ICT 적용 교육혁신 연구들의 역대 정부별 연구주제 변화 동향분석: 18년간,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8(4), 239-264
- 김영환(2019). 국내 혁신학교 관련 연구주제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6), 113-132.
- 김영환(2021). 인공지능교육 관련 연구주제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31(4), 197-217.
- 김영환, 이승민, 배혜림, 손미(2019). 교육혁신관련 연구주제 변화 동향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9(1), 91-116
- 김영환, 정현숙(2014). 핀란드의 영어교육환경의 현황 및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24(6), 273-295.
- 김원경, 김가람(2019). 시각적 사고와 디자인 사고의 창의융합교육 적용 연구 - 우리나라·핀란드 수학교과서 시각요소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0(6), 127-138.
- 김유정, 홍훈기(2019). 한국과 핀란드의 고등학교 내신평가체제 비교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22(1), 77-100.
- 김은지(2023, 1월 17일). **핀란드 역량교육의 운영 실태와 성과**,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https://21erick.org/column/9528/>
- 김인옥, 박지희. (2017). 면담과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핀란드 영어교육의 시사점. **언어학 연구**, 42, 289-310.
- 김정현(2014). 핀란드의 기초교육법과 교육제도, **공법연구**, 42(4), 201-226
- 김하영(2020).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대책 탐색 : 노르웨이, 캐나다, 핀란드를 중심

- 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32(1), 555-564.
- 도미향(2013). 핀란드의 보육 및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코칭연구**, 6(1), 91-108.
- 박창언(2023). **새로운 교육과정-제도적 과정의 분석**. 서울: 학지사.
- 박현정(2008). 학습동기, 자아개념, 학업성취간 관계의 집단간 동등성 분석-PISA 2006을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21(3), 43-67.
- 방정숙, 김유경(2017). 한국, 일본, 홍콩, 핀란드, 싱가포르 초등 수학 교과서의 합동과 대칭에 대한 비교·분석. **수학교육**, 56(3), 235-255.
- 서현수(2021). 핀란드 복지국가의 과거, 현재, 미래: 정치제도, 복지체제, 교육정책의 연계와 다이내믹을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 28, 97-139
- 서현수(2023). 역량 중심 복지국가와 교육혁신 4.0: 핀란드 교육개혁 모델의 특징과 함의. **스칸디나비아 연구**, 31, 1-44
- 서현수, 최한수(2020).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최종 결과와 함의. **스칸디나비아연구**, 26, 1-45
- 성기선, 김준엽(2010).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시간과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 비교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0(1), 103-126.
- 성열관(2009). 핀란드는 어떻게 ‘핀란드식’ 교육정책을 형성하게 되었는가?: 글로벌 거버넌스와 일국의 차용방식. **비교교육연구**, 29(6), 55-82
- 손미, 정주훈, 김영환(2016). 교육정보미디어연구의 역대 정부별 연구주제 변화 동향 분석: 20년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적용하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2(1), 31-53
- 신문승(2011). 핀란드 종합학교 교육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통합교육과정연구**, 5(2), 127-149
- 신문승(2018). 싱가포르와 핀란드의 수월성 교육 체제비교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16(4), 29-51.
- 유경훈, 임종현, 김병찬(2017). 핀란드 교육개혁의 특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3(1), 319-352.
- 윤승희(2015).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양육수당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4, 1-24
- 윤유진(2009). 핀란드의 영어교육과정 연구. **한국교육논총 (구 교육연구논총)**, 30(1), 61-73.
- 이경남(2022). 우리나라의 기초학력으로서 문해력 지원 정책 현황 분석과 시사점. **새국어교육**, 133, 327-356.
- 이소영, 노석구(2014). 우리나라 2009 개정 초등 과학교육과정과 핀란드 초등 과학교육과정 비교 분석. **초등과학교육**, 33(3), 491-509.
- 이수상(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 이인화, 구남욱(2019). PISA 2015 읽기 영역 결과에 나타난 한국 학생들의 성취 특성 및 교육맥락 변인의 영향력 분석 연구. **독서연구**, 50, 113-144.
- 이진경(2023). 한국과 핀란드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 비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5), 383-400.
- 이현지, 이동주(2022). Coh-Metrix를 활용한 한국과 핀란드의 대학입학시험읽기 지문 난이도 비교

- 연구. **영어교과교육**, 21(3), 183-203.
- 임미나(2021). 핀란드 학교폭력 회복적 조정 프로그램 현황과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 **이화젠더 법학**, 13(2), 135-170.
- 임해미, 이현정, 김성숙(2016). 우리나라,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의 PISA 2012 수학 성취와 교육맥락변인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20(2), 97-110.
- 임해미, 한정아(2016). 우리나라, 싱가포르, 핀란드의 PISA 2012 수학에서의 성취에 대한 교육맥락변인 영향력 비교 분석. **수학교육학연구**, 26(2), 189-204.
- 전하람, 이정양, 임은희, 윤민주(2021). 성인의 학습준비도와 청소년기 학습흥미도 간의 관계 국제 비교: PIAAC과 PISA의 활용. **한국교육문제연구**, 39(4), 195-218.
- 정경화(2020)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동네 핀란드가 천국을 만드는 법**. 서울: 틈새책방.
- 정혜원, 박소영, 김정인, 김아름(2021). 청소년의 읽기 소양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변인 탐색: PISA 2018 한국 핀란드 국제비교. **교육과정평가연구**, 24(1), 123-152.
- 조덕주·이경희(2013). 한국과 핀란드의 중학교 과학 교과서 비교 분석. **비교교육연구**, 23(3), 177-206.
- 조문주(2011). 한국과 핀란드 수학교과서 삽화의 다문화적 내용 비교분석. **다문화교육**, 2(1), 57-78.
- 채희인, 노석구(2015). 범교과적 핵심역량과 과학 핵심역량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연구 동향의 네트워크적 분석. **교과교육연구**, 15(7), 23-40.
- 최은, 권오남(2020). 한국, 호주, 핀란드의 수학 교과서에서 삼각법 영역 비교. **수학교육논문집**, 34(3), 393-419.
- 최혁준(2015). 한국, 일본, 핀란드의 PISA 2012 과학 결과 비교. **교원교육**, 31(3), 379-399.
- 한유경, 박주형, 엄수정, 곽예린(202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대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30(3), 25-56.
- 홍승아(2011). 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에 관한 연구 = 핀란드 가정양육수당제도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31, 85-119
- Aho, E., Pitkanen, K. & Sahlberg, P. (2010). **에르키 아호의 핀란드 교육개혁보고서** (김선희, 옮김), 서울: 한울림. (원서출판 2009).
- Park, H. W., & Leydesdorff, L. (2004). Understanding the KrKwic: A computer program for the analysis of Korean tex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5), 1377-1387.
- Sahlberg, P. (2011). *Finnish Lessons. What Can the World Learn from Educational Change in Finland?*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Sahlberg, P. (2016). **핀란드의 끝없는 도전** (이은진, 옮김), 서울: 푸른숲. (원서출판 2011).

[Abstract]

## Analysis of Finnish Education-related Research Trends in Korean Journals : A Network Text Analysis

Kim YoungHwan, Kim YoungMin, Kim Hyunsoo, Noh Jihwa, Murphy Odo Dennis, Park Changun, Chung JuHun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 Kim EunJi (Doctoral student, Tampere Univ., Finland), Bae JinHee (Professor, Jesus Univ.), Shon Mi (Professor, Busan National Univ. of Educ), Lee ChaeYoung(Doctoral student, PNU)

Since the release of the 2000 PISA results, Finland's education has consistently been regarded as a competitor or benchmark for South Korea's educational system. However, recent indicators of division, opposition, and discontent within our educational sphere suggest a considerable departure from Finland's ethos of happiness in educ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ends in Finnish education-related research appearing in Korean academic journals. Utilizing network text analysis, we examined 160 papers indexed in RISS with titles containing "Finland" and "education".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research on Finnish education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lbeit showing recent signs of decline. Secondly, the majority of research topics were micro-level, with literature review-based methodologies predominating. Thirdly, a minority of researchers accounted for one-third of the total research output. Fourthly, countries compared with Finland predominantly included neoliberal states such as Japa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Singapore. Fifthly, research themes and subjects primarily focused 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particularly in domains such as mathematics and science, influenced by PISA. Future research on Finnish education should transcend localized and fragmented areas of inquiry, undertaking comprehensive investigations into the processes and history of Finland's happiness-oriented education. Such endeavors are essential for deriving insights crucial for our learning. Particularly,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moving beyond

literature-based methodologies, fostering international collaborative discussions facilitated online, and linking the Finnish education community with educators, parents, students, local councils, and governmental stakeholders to collectively discuss and research.

**Keywords:** Finland, Research Trends Analysis, Domestic Journals, Network Text Analysis